

제 26 회 '동창의날행사'에서 재미 한승신 회원 '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' 시상



서울의대 동창회와 모교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 26 회 동창의날 행사가 10 월 5 일 오후 모교 대강당에서 열렸다. 올해 동창의 날 행사는 졸업 40 주년을 맞은 30 회 동기회(회장 채종일)가 주빈으로 초대받아 모교와 본회 임원들의 환영을 받았다. 행사는 오후 4 시 모교 대강당에서 30 회 동기생 30 여 명과 동창회 임원, 대학의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, 강대희 모교 학장과 홍정용 동창회 장의 축하메시지에 이어 모교의 현황 소개가 있었다. 특히 행사에서는 '자랑스러운 서울의대인상' 시상 이 있었는데 제 10 회 장기려의도상 수상자이며 퇴임 후에도 아프리카 의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 선영('76, 충남의대 호흡기내과 명예교수) 회원과 미국 방사선종양학계에서 실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재미 한승신('76, 미국 뉴욕주립대 업스테이트 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) 회원이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. 이날 기념행사에서 30 회 동기생들은 모교와 동창회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 기금으로 각각 1,000 만원씩을 전달했다. 이어 단체사진을 촬영한 뒤 학내 시설을 견학하고, 함춘회관도 방문하여 함춘미술전을 둘러보는 등 함춘원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다.